

# 미수습자 5명 꼭 찾고 침몰 원인 밝혀야

세월호 선내 수색 100일의 기록과 남은 과제

## 선조위, 조타 과실·급선회 항적·복원성 여부 집중 조사 진도군민 기름 유출 피해 등 구체적 지원 방안 논의해야

26일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렸던 세월호가 인양, 육상 거치돼 본격적으로 선체 내부에서 미수습자(당시 9명) 수색을 시작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난 4월11일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하자 미수습자 가족들은 아들, 딸, 남편, 엄마를 당장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현재 여전히 미수습자 5명은 가족들과 만나길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동안 수색 과정과 앞으로의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미수습자 4명 유해 발견=첫 번째 유해는 미수습자 9명 모두 선체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세월호 침몰해역 바닥에서 발견됐다. 지난 5월5일 수중수색 중 사람 정강이뼈로 보이는 유골을 건져내고 5월17일 감식결과 교사 고창석(사고 당시 40세)씨로 최종 확인됐다. 마지막

희생자를 수습한 지 920일 만이었다. 5월10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4층 선미 좌현 객실 쪽에서 사람뼈로 추정되는 뺏조각을 수습했다. 세월호 내부에서 처음 유해를 찾은 순간으로, 4층 선미 객실은 조은화양과 허다운양이 머물던 곳이었다. 또 5월11일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뺏조각 1점을 수습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조은화양의 가방이 발견됐다. 5월13일에는 조은화양의 유해를 찾았다. 5월16일에는 세월호 3층 객실 중앙부 우현(3-6구역)에서 치아와 치열을 수습했다. 단원고 학생 허다운양(5월19일 최종 확인)이었다.

5월22일에는 3층 선미 좌현 객실(3-18구역)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운전형 태의 유해를 찾았다. 옷에서는 일반인 미수습자 이영숙(여·사고 당시 51세)씨의 신

분증이 나왔고 6월5일 DNA 분석결과 역시로 최종 확인됐다.

현재 미수습자는 단원고 학생 박영인·남현철군, 교사 양승진씨, 일반인 승객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 등 5명이다.

◇남은 과제=가장 시급한 현안은 미수습자 수습이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객실 위주로 진행했던 1차 수색을 지난달 20일 종료하고 같은 달 21일부터는 1~2층 화물칸으로 범위를 넓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화물칸은 차량이 뒤엎혀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색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미수습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수습자 수습작업과 함께 선체조사도 진행중이다.

조사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3월 결성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맡았다. 선조위는 지난 7월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조사기간은 6개월로, 1회에 한해 4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은 총 115

억4400만원이다. 선조위는 앞으로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에 관한 조사',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에 관한 조사', '세월호 복원성 등에 관한 조사' 등 3건을 집중적으로 살피 예정이다.

선조위 조사가 끝나면 세월호 선체 보존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선조위는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때 선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선체 보존'이 유력해 보인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도 선체 보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진도군민에 대한 지원도 논의돼야 한다. 정부는 진도 팽목항 인근에 270억원을 투입, 오는 2020년까지 국민해양안전관을 추진중이지만 연간 25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은 풀어야 할 과제다.

세월호 침몰과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미역양식 어민들은 최소 5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보훈사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세월호 선내 수색이 시작된 지 100일을 맞은 26일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이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김현영기자 young@

## 경찰 간부, 특수활동비 부적절 사용 논란

### 아내 운영 식당서 회식비로 써

광주경찰청의 한 간부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 등에 써야할 부서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로 매년 3~4차례에 걸쳐 회당 30만~50만원대의 특수활동비를 '기프트카드'(현금 카드 일종) 형태로 지급받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진 경비다.

특히 문제인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 때 오간 돈의 출처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면서 국민적 비난을 샀으며, 청와대 등도 불투명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을 지적해왔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광주경찰청의 특정 부서는 소속

간부의 아내가 운영하는 한 음식점에서 단체 회식비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자신의 아내에게 카드를 맡겨 놓고, 수차례에 걸쳐 일정 액으로 쪼개는 방식을 통해 결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8월과 올 2월 등엔 직원 회식비로 각각 90만원이 넘는 금액을 썼고 카드 결제 금액 쪼개기 방식으로 분할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부는 이와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되면 성과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일부 나오는 데, 수사 도중 외상으로 직원들과 먹은 회식비 등을 갚는데 사용하곤 했다"며

서 "이 과정에서 외상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한 것뿐이며, 앞으로는 (특수활동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엔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용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실,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나서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초등 1학년까지...집단 따돌림 '시끌'

### 학부모 "학교 미온 대처" 지적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왕따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여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여수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반에서 학기 초부터 한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무리를 지어 특정 학생을 혼자 있도록 하고 놀리는가 하면, 화장실을 못 가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다른 학생이 모래를 던지는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피해 학부모는 "5월부터 담임교사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교사

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모는 "정차 담임교사가 왕따를 방치해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사로서 학교 폭력을 은폐하고 비인권적 교육 행태를 보인다"며 "학교와 교사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담임교사는 책임을 옅은 학생을 혼육한다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책임을 옅었다"고 덧붙였다.

담임교사는 이에 대해 "너무 당황스럽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제기되자 28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담임교사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2학기부터는 담임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glee@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 징역 6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징역 6년, 조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임 연구원 최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 존리 전 대표의 주의를 무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에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팩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을 줄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 충기류 수집 취미 30대

### 모형 권총 4자루 훔쳐

광주북부경찰은 26일 레포츠헬용품판매점에서 모형 권총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A레포츠헬점에서 사장 A(41)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진열대 안 상자에 들어 있던 모형권총(가로 20·세로 20cm·무게 약 1

kg) 2자루를 훔치고 지난 2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모형권총 2자루를 절도를 하는 등 총 150만원 상당 모형권총 4자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충기 진열대 정리 중 모형 권총이 든 상자 4개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충기류 수집이 취미였던 김씨는 해당 레포츠헬점에 자주 들린 단골 손님으로, 훔친 물건은 집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3년간 농촌 빈집 텃 30대 창틀에 지문 남겼다가 '덜미'



○...지난 3년간 농촌을 돌아다니며 집주인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수십차례 절도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창틀 등에 지문을 남겼다가 경찰에 덜미.

○26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지난 6월27일 곡성군 곡성읍 조모(여·39)씨의 자택 열려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35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번달까지 광주, 무안, 영광, 구례, 순창 등에서 26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핸드폰 등 15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는 것.

○...김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밖에서 1시간 이상 지켜보며 빈집인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경찰은 "농촌에선 대부분 대문만 잠고고 현관과 창문은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부안 숙박시설(모텔)

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해변가 5분  
대명리조트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2개동 룸43개)  
월 수익 2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매매가 10억 (용 6억 가능)

직매 010-7384-7800

### 수기동 상가(매매·임대)

20층 중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5천만 투자 무료제공  
보 1천만, 월 70만 / 즉시 임대 가능

1억 6천 → 9천8백 (용 5천)

### 영광 주택

급매 신축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 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1억 1천 → 9,800만원 (용 2천)

010-6670-9800

### 대신경매

입찰부터 ~ 명도까지  
건설개발, 리모델링 전문  
(사무실) 상무지구 한국은행 맞은편

수익성 상가 추천 (기타)

- 북구 신안동 (10층 중 4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5천2백
-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 6층  
토 6평, 건 24평  
▶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 첨단 오피스텔 (10층 중 7층)  
토 2평, 건 11,7평  
▶ 감정가 9천2백 → 최저가 6천4백
- 북구 신안동 (8층 중 5층상가)  
토 48평, 건 176평  
음식점 프랜차이즈 시설완비, 권리금 없음  
▶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
- 북구 양산동 (아파트상가)  
토 25평, 건 14평  
▶ 감정가 6천6백 → 최저가 6천6백
- 북구 오치동 (근린주택)  
토 26평, 건 60평  
▶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
- 상무지구 4층 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000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억9천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

062-527-7600

### 경매교육

① 기초이론반  
▶ 매주 개강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

② 실전투자반  
실전 교육되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③ 프리코스반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서구 상무지구 상무버들중공 (분양면적 24평)  
감정가 1억6,300만 → 최저가 1억1천4백
-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분양면적 50평)  
감정가 4억8,700만 → 최저가 3억4천
- 광산구 산월동 첨단 호반리전세빌 (분양면적 36평)  
감정가 2억9백 → 최저가 2억9백

010-2699-5300  
062-382-5500